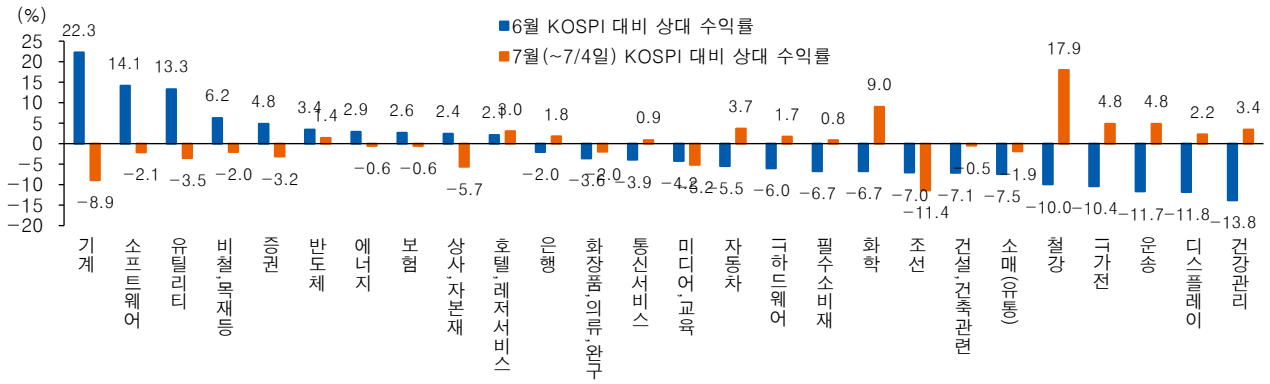
# 시장을 이기는 차트

김용구 Strategist
yg.kim@yuantakorea.com

## 낙폭과대 2Q 실적주: 화학/바이오/비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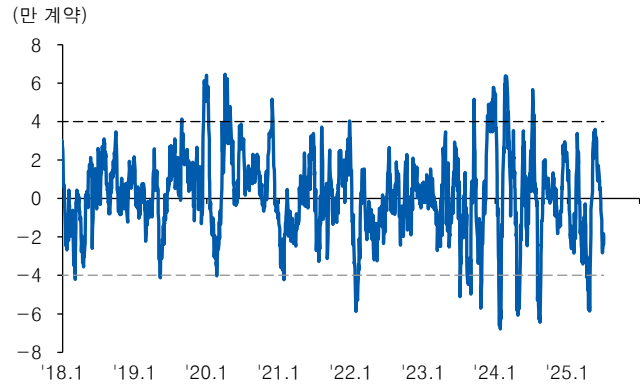
- 6월 주도주들은 7월 증시 개막과 함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고, 6월의 Loser들은 7월 시장의 Winner로 반전
- 이는, 1) 주가/밸류/수급 측면 누적된 상승 피로, 2)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종전 주도주 중심 차익매물 출회('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'), 3) 국내외 2Q 실적시즌 개막 및 7월 국가별 대미 무역협상 타결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 영향 등이 7월 시장의 숨 고르기 전환과 함께 업종/종목간 순환매를 자극한데 따른 결과
- 시장 인덱스 경로 및 외인/기관 현물 수급에 동선행하는 외국인 KOSPI200 지수선물 20일 누적 순매수는 7/4일 현재 -2.4만 계약으로 -4만 계약권 하방 임계선에 미달. 외국인 현선물 매물소화 과정 지속과 시장 기간조정 지속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
- 궁금한 점은 충분한 수준의 주가 하방 경직성으로 대내외 잠복 불확실성 완충 및 시장 기간조정 돌파가 가능하며, 2Q 실적 모멘텀 겸비로 괄목상대격 순환매 대열에 가세할 수 있는 업종/종목 대안 판단

그림 1. WI26 주요 업종별 KOSPI 대비 상대 수익률: 6 월 Winner/Loser → 7 월 Loser/Winner 로 반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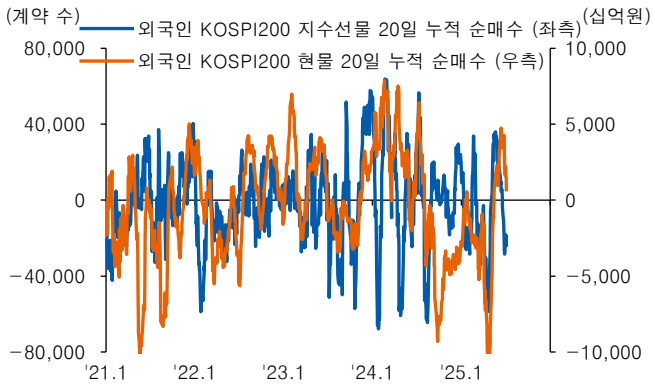

자료: Quantiwis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2. 외국인 KOSPI200 지수선물 20 일 누적 순매수 추이


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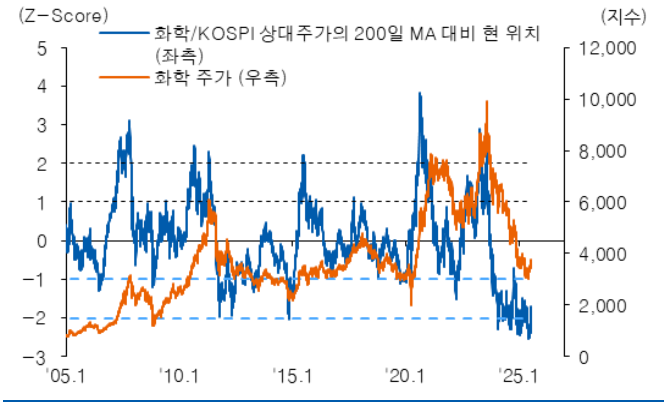
그림 3. 외국인 KOSPI200 지수선물과 현물 20 일 누적 순매수 추이


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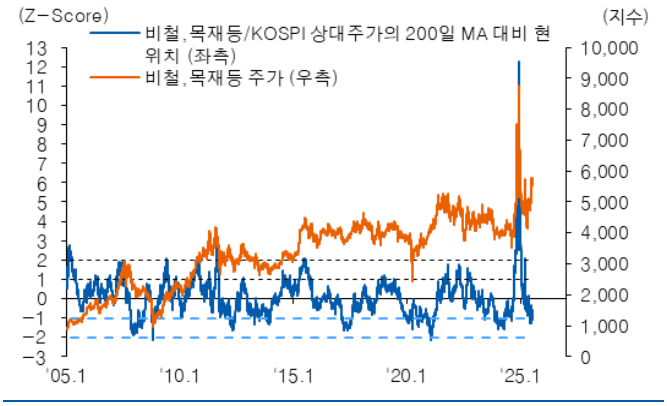
- 통계적 낙폭과대 여부는 업종/KOSPI 상대주가의 200일 이동평균 대비 현 주가 위치(Z-Score)가 -1.0 이하로 판단
- 7/4일 종가 기준 현재 통계적 낙폭과대 업종은 화학, 비철/목재, 자동차, 바이오, IT가전(2차전지), 디스플레이 등 총 6개

그림 4. 화학/KOSPI 상대주가의 200 일 MA 대비 현 위치(-1.7)와 화학 주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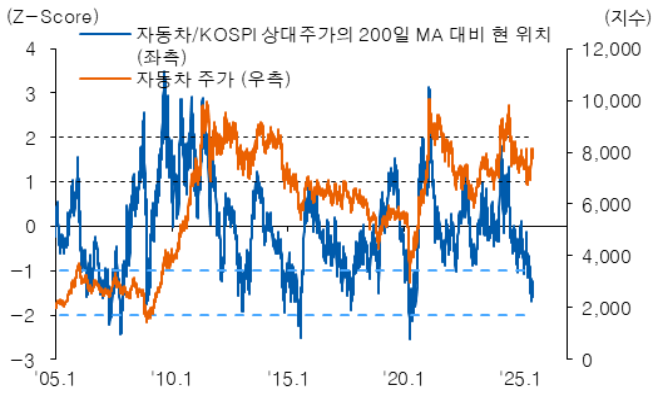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5. 비철/KOSPI 상대주가의 200 일 MA 대비 현 위치(-1.1)와 비철 주가


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6. 자동차/KOSPI 상대주가의 200 일 MA 대비 현 위치(-1.2)와 자동차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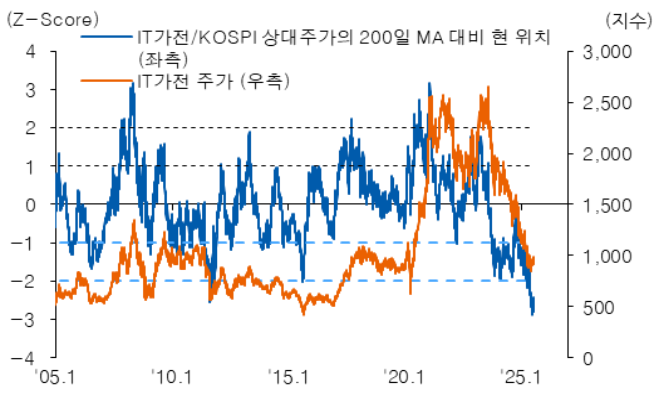

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7. 바이오/KOSPI 상대주가의 200 일 MA 대비 현 위치(-1.0)와 바이오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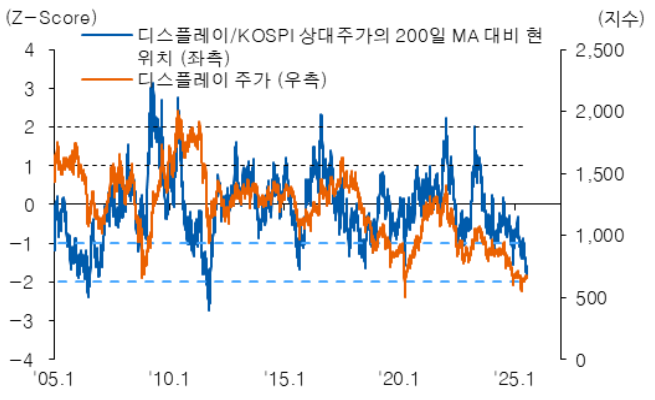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8. IT 가전/KOSPI 상대주가의 200 일 MA 대비 현 위치(-2.4)와 IT 가전 주가


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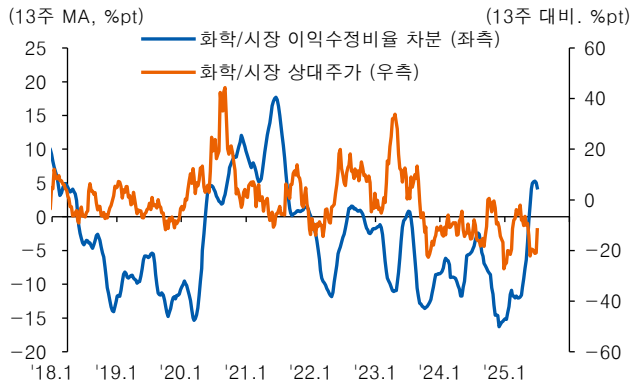
그림 9. 디스플레이/KOSPI 상대주가의 200 일 MA 대비 현 위치(-1.6)와 디스플레이 주가


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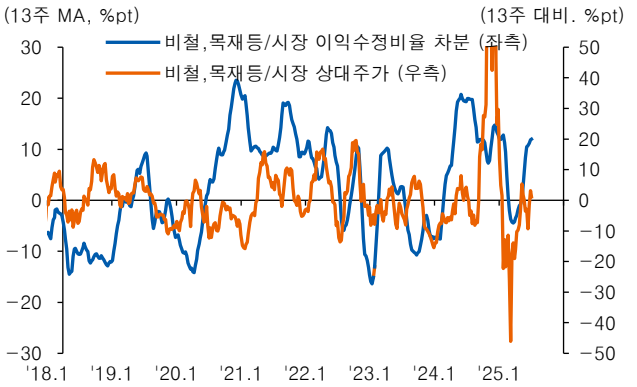
- 통계적 낙폭과대 업종(화학, 비철/목재, 자동차, 바이오, IT가전(2차전지), 디스플레이) 가운데, 최근 실적 모멘텀(이익수정비율)이 KOSPI보다 앞서는 업종대안은 화학, 바이오, 비철
- 낙폭과대 2Q 실적주에 준하는 화학, 바이오, 비철 대표주를 대내외 잠복 불확실성 완충과 투자대안간 순환매에 대응하는 7월 시장의 액티브 알파로 활용할 필요

그림 10. 화학-KOSPI 실적 모멘텀 Gap 과 화학/KOSPI 상대주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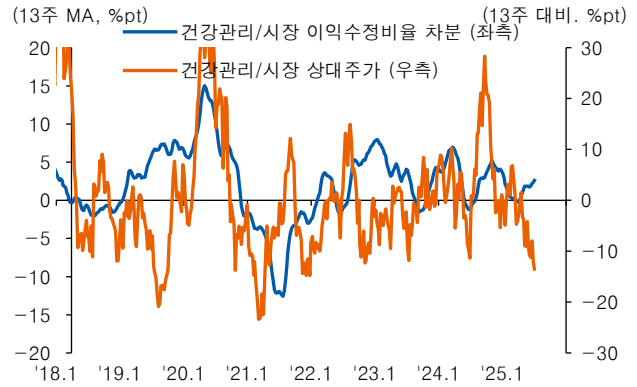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11. 비철-KOSPI 실적 모멘텀 Gap 과 비철/KOSPI 상대주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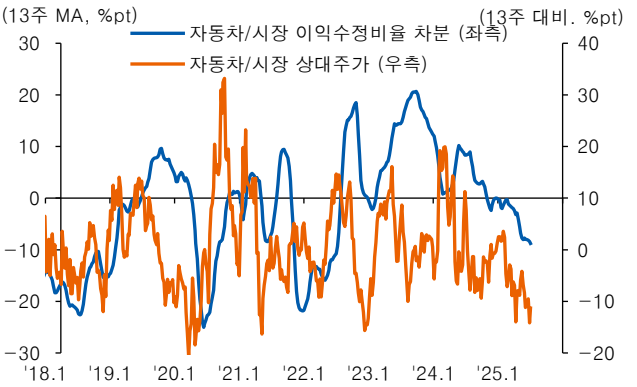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12. 바이오-KOSPI 실적 모멘텀 Gap 과 바이오/KOSPI 상대주가


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13. 자동차-KOSPI 실적 모멘텀 Gap 과 자동차/KOSPI 상대주가




자료: KRX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- 관련 논의를 실적 컨센서스 보유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군으로 확장해, 통계적 낙폭과대 2Q 실적주를 판단
- LG화학, 고려아연, 유한양행, HD현대마린솔루션, SK바이오팜, 클래시스, 농심, HPSP, 아시아나항공, 에스티팜, HL만도, 녹십자, GS리테일, 테크윙, 경동나비엔 등이 관련 맥락에 부합하는 종목대안에 해당

표 1. 통계적 낙폭과대(종목/KOSPI 상대주가의 200 일 MA 대비 현 위치 Z-Score -1.0 이하) 2Q 실적주 옥석 가리기

| 종목명 | 시가총액 (조원) | 종목/KOSPI 상대주가의 200일 MA 대비 현 위치 (Z-Score) | | | 2Q25 영업이익 (%) | | 2025년 영업이익 (%) | | 12개월 선행 밸류에이션 (배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현재 | 1개월 전 | 3개월 전 | 전년 대비 | 1개월 변화율 | 전년 대비 | 1개월 변화율 | P/E | P/B |
| LG 화학 | 18.7 | -0.9 | -1.9 | -1.0 | 흑전 | -7.8 | 흑전 | -5.2 | 19.1 | 0.6 |
| 고려아연 | 16.0 | -1.5 | -1.1 | -0.3 | 5.2 | -4.6 | 53.6 | -2.4 | 30.3 | 1.8 |
| 유한양행 | 8.5 | -2.0 | -1.7 | -0.5 | 117.2 | 8.9 | 96.8 | -2.0 | 57.9 | 3.5 |
| HD 현대마린솔루션 | 8.4 | -1.2 | 0.6 | -1.3 | 23.9 | 0.0 | 34.1 | 0.0 | 24.9 | 8.8 |
| SK 바이오팜 | 7.2 | -1.6 | -1.3 | 0.2 | 40.2 | -2.0 | 61.7 | 0.0 | 33.3 | 8.2 |
| 클래시스 | 3.9 | -0.9 | -0.5 | 0.0 | 35.3 | 0.1 | 47.9 | 0.5 | 23.5 | 5.8 |
| 농심 | 2.4 | -0.8 | 0.0 | 0.3 | 16.4 | 0.4 | 23.1 | 0.2 | 12.4 | 0.8 |
| HPSP | 2.3 | -0.8 | -1.1 | -0.7 | 104.3 | 0.7 | 5.6 | 0.0 | 22.8 | 6.0 |
| 아시아나항공 | 2.0 | -0.9 | -0.4 | 0.1 | 211.1 | 47.4 | 17.2 | 6.6 | 11.0 | - |
| 에스티팜 | 1.7 | -0.8 | -0.9 | -0.8 | 흑전 | 0.0 | 55.9 | -0.4 | 37.1 | 3.1 |
| HL 만도 | 1.6 | -1.5 | -1.2 | -0.2 | 10.2 | 0.1 | 9.2 | -1.9 | 6.9 | 0.6 |
| 녹십자 | 1.5 | -1.0 | -0.8 | -0.4 | 25.8 | 0.0 | 112.9 | 0.0 | 38.8 | 1.2 |
| GS 리테일 | 1.4 | -1.0 | -1.2 | -1.5 | 26.4 | -1.5 | 4.7 | -0.7 | 9.9 | 0.4 |
| 테크윙 | 1.2 | -1.2 | -0.8 | -0.9 | 53.2 | 15.8 | 357.1 | -3.2 | 9.1 | - |
| 경동나비엔 | 1.1 | -1.5 | -0.7 | -0.1 | 12.7 | 0.0 | 17.0 | 0.0 | 7.1 | 1.1 |

자료: Quantiwis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## Appendix
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(작성자: 김용구)
-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